

일제강점기 馬山埋築株式會社 운영과 일본인 경제인

김예슬*

tmf1403@kyungnam.co.kr

<目次>

- | | |
|---------------------|-----------------------|
| 1. 서론 | 3.2 외래유입형 |
| 2. 일본인 중역 독점의 회사 설립 | 4. 회사의 독점운영과 민족 차별 경제 |
| 3. 일본인 중역의 유형 | 5. 결론 |
| 3.1 토착형 | |

主題語: 마산매축주식회사(Masan Maechuk Co.,Ltd.), 일본인 경제인(Japanese businessmen), 토착형(indigenous type), 외래유입형(Foreign inflow type), 신마산(Shinmasan), 원마산(Wonmasan)

1. 서론

1899년 5월 1일 마산항이 개항되자 마산으로 이주 정착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였고, 특히 마산선이 개설되어 부산, 김해, 진해 등 근거리로 연결되면서 증가폭이 커졌다.¹⁾ 그리하여 개항 당시 103명이던 일본인은 1906년에 2,170명, 1907년에 3,279명으로 급증하였고, 1908년에는 일본인 거류지만으로 본정(本町), 경정(京町), 빈정(濱町) 등 11개의 마을이 성립하였다. 이곳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근거지인 마산포를 ‘舊馬山’(이하 원마산)²⁾이라 부른 것에 반해

*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1) 平井斌夫(1911)『馬山と鎮海灣』濱田新聞店, pp.6-7

2) 본 논문에서는 전통시대부터 조선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주도권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려는 의식을 가진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원마산’이라고 명명한다. 이처럼 지명에 관해서는 먼저 유장근이 마산포와 그 일대를 ‘원마산’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마산포는 19세기 전반에 이미 객주가 130호를 이룰 정도로 큰 상가를 형성한 곳이었다. 게다가 마산포장은 동해의 원산장, 서해의 강경장과 더불어 남해안을 대표하는 최대의 어시장이었다. 따라서 그는 이곳이 개항 이전부터 이미 조창과 어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되었고, 식민지 당국에 의해 개발된 ‘신마산’에 대해 우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마산의 시원지이자 으뜸이 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원마산’으로 부르자고 하였다. 허정도 역시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지역 명칭에 ‘구(舊)’자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왕성했던 도시 기능이 새로운 도시 즉, 신마산의 출현으로 소멸하거나 쇠퇴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하며 ‘원마산’으로 부르자고 하였다. (『제언』, 『경남신문』, 1999년 1월 30일.; 허정도(2002)『근대기 마산의 도시변화과정 연구』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14)

자신의 거류지를 ‘新馬山’이라 칭하였다.³⁾

일본인들은 거류지를 중심으로 거주하였으나 부산부와 달리 일본인 인구가 장시의 형성할 만한 수준으로 형성되지 않았던 이유로 인해서 이웃 조선인 상권을 활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⁴⁾ 그래서 1902년 舊江(현 산호동)에서 열리던 조선인의 정기장시를 폐쇄하고, 일본인 거류지에다 장시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인 상인들의 저항에 부딪혀 거류지 개설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 장시 획득에 실패한 마산지역 일본인들은 일본본토와 미국 거래를 확대하고 신마산에 상점가를 설립하는 등을 통하여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였다.⁵⁾

기존 연구에서 일본인 경제인⁶⁾에 대한 분석을 보면, 먼저 『馬山開港百年史』에서 일본인 경제인들이 ‘1920년부터 1930년대 마산부의 경제권을 장악한’ 사실은 언급하였으나 정작 일본인들의 경제적 실태나 활동 혹은 마산경제에서 그들의 역할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⁷⁾ 또한 허정도, 이윤상 등의 연구에서도 일본인 경제인에 대한 분석이 있지만 주로 피상적인 일본인 개개인의 직업, 상업 및 무역 활동 등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⁸⁾ 그런데 마산부 일본인 경제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예슬의 『일제강점기 마산지역 사업체와 조선인경제인 연구』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그는 이 연구에서 일본인 경제인들이 1930년대 이후 전시특수를 활용하여 마산경제권을 장악해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⁹⁾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마산 상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연구했다면 김예슬은 조선인 경제인들이 곳곳하게 일본인의 자본투하와 경제적 진출에 대응하여 생존 혹은 확장하는 이른바 ‘강고한 조선인 경제인의 모습’을 밝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마산지역의 지역별, 시기별 경제 흐름에 대한 일정한 연구 축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상을 구체화하는 개개 경제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허정도에 의해 일본인 경제인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가 연구되었으나, 경제활동보다는 그가 마산지역에서 실시한 매축 사업과 매축지 분양 등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¹⁰⁾ 실제적으로 마산지역을 주무르고 배타적인 일본인만의 경제블록을 형성하였던 개개 일본인 기업이나 일본인 경제인의 실상에 대해선 그다지 연구가 없다.

3) 諏方史郎(1926)『馬山港誌』朝鮮史談會, p.91

4) 諏方史郎(1926)『馬山港誌』朝鮮史談會, p.63

5) 山口精 編(1909)『朝鮮産業誌(下)』寶文館, p.456

6) 본 논문에서 ‘일본인 경제인’은 마산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인물들의 총칭이다.

7) 마산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1999)『馬山開港百年史』마산시, p.212

8) 허정도(2002)『근대기 마산의 도시변화과정 연구』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윤상(2004)「개항 전후 마산지역의 경제적 변화」『역사문화학회』역사문화학회

9) 김예슬(2019)『일제강점기 마산지역 사업체와 조선인경제인 연구』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허정도(2005)『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신서원

사실 일본인 경제인의 활동은 이미 마산항 개항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진출한 일본인들은 마산 앞바다 해면을 매립하여 얻은 땅을 통해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였고, 이런 매축사업을 광복 이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馬山埋築(株)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일본인만으로 중역을 구성한 이른바 민족적 독점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 집단은 마산 부의 공공사업 과정에서 일본인만으로 배타적인 블록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이해를 독점하는 그야말로 민족차별 경제의 주도자였다. 이에 본 연구는 그러한 지역 독점의 배타적인 일본인 경제의 주역인 馬山埋築(株)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마산지역에서 매축사업을 독점한 馬山埋築(株)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1) 회사 설립과정에 나타난 일본인 독점성을 검토하고, (2) 일본인 경제인의 유형별 실상을 분석한 위에 (3) 독점이익과 민족차별로 점철된 회사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둔다.

2. 일본인 중역 독점의 회사 설립

1899년 5월 마산항이 개항되자 일본, 러시아 등의 각국에서 마산에 거류지 조성과 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그중에서도 일본이 개항 당시 103명이었던 인구가 러일전쟁 이후 1906년에 2,170명, 1907년에 3,279명으로 20~30배씩 증가할 만큼 적극적이었다.¹¹⁾ 일본인들이 마산으로 이주 정착했던 것은 첫째, 바다가 거칠지 않은 灣이 있고 둘째, 기름진 평야를 지닌 지방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셋째, 지방의 구매력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등에 근거한 것이었다.¹²⁾ 즉, 이들은 지역이 가진 경제적 조건에 따라 마산으로 유입되었던 것이었다. 이후, 마산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는 1908년에 3,687명, 1909년에 4,321명, 1910년에 5,941명으로 해마다 많게는 1,000명 적게는 대략 400~500명씩 이주해왔다.¹³⁾

일본인들의 마산으로 유입이 활발하다 보니, 거류지는 곧 “하나의 작은 지구 안에 56棟의 大家가 마구 섞여 질서가 없는 곳”¹⁴⁾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08년 4월 23일에 理事官, 警察署長, 郵便局長, 居留地の 民會議員 등이 모여 거류지 형세에 따라 마을 이름을 정하였다. 이후, 이곳은 본정(本町), 경정(京町), 빈정(濱町), 서정(曙町), 대정(臺町), 파정(巴町), 녹정(綠町), 영정(榮町), 류정(柳町), 옥정(旭町), 앵정(櫻町)으로 명명되었다.¹⁵⁾ 일본인들은 이 일대를 조선

11) 平井斌夫(1911)『馬山と鎮海灣』濱田新聞店, p.7

12) 平井斌夫(1911)『馬山と鎮海灣』濱田新聞店, p.38

13) 平井斌夫(1911)『馬山と鎮海灣』濱田新聞店, p.7

14) 諏方史郎(1926)『馬山港誌』朝鮮史談會, p.90

15) 諏方史郎(1926)『馬山港誌』朝鮮史談會, pp.90-91

인들의 거주지이자 상업지인 마산포와 구별하여 스스로 ‘新馬山’이라 불렀고,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¹⁶⁾

한편, 일본인들은 신마산 일대 중 경정(京町)에 상점 거리를 조성하며 ‘馬山の銀座’라 불렀고 이곳을 중심으로 회사 설립을 시작하였다.¹⁷⁾ 이들이 조선인들의 상업 중심지인 원마산 일대에서 적극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시기는 1928년 이후부터였다.¹⁸⁾ 그것은 원마산의 내부 도로공사가 1928년이 되어서야 마무리됨에 따라, 이전 시기에는 교통 불편으로 인해 사업체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마산지역에 세운 회사는 103개소로 조선인회사 55개소에 비해 48개소나 앞섰다.¹⁹⁾ 나아가 이들은 조선인들이 설립하지 않은 업종으로 매축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각 지방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전국에 세워진 매축회사 명단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일제하 조선에 설립된 매축회사 명단

번호	회사명	설립년도	자본금	공칭 자본금	위치	민 족	업 종
1	大八社(株)	1921-07-05	100,000	25,000	대구부 동성정 2丁目 162	일	금융 신탁
2	釜山鎮埋築(株)	1926-10-26	3,000,000	750,000	부산부 영정 1丁目 4-5	일	雜業
3	釜山築港(合資)	1928-10-01	500,000	-	부산부 부평정 3丁目 55	일	雜業
4	統營埋築(株)	1929-03-25	50,000	25,000	경남 통영군 통영읍 길야정 100	일	雜業
5	馬山埋築(株)	1930-04-06	100,000	25,000	경남 마산부 원정 221	일	雜業
6	漁大津土地(株)	1930-03-13	100,000	25,000	함북 경성군 어랑면 송신동 197	일	雜業
7	江原港灣埋築(株)	1938-02-15	400,000	300,000	강원도 고성군 장전읍 장전리 201-2	일	雜業
8	羅老島土地(株)	1940-04-27	30,000	30,000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1120-2	일	雜業

출전: 大八社(株) 등,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3년·1927년·1929년·1931년·1939년·1942년 판.; 『朝鮮總督府官報-登記』, (제3155호 1923년 2월 19일) 11면, (제3361호 1938년 4월 2일) 28면, (제3995호 1940년 5월 18일) 8면.

16) 諏方史郎(1926)『馬山港誌』朝鮮史談會, p.91

17) 松岡美吉 編(1941)『躍進馬山の全貌』馬山名勝古蹟保存會, p.6

18) 일본인들은 1910년부터 원마산 일대에 도로 공사가 완공되는 1928년까지 총 20개소의 회사를 세웠는데, 이 중 15개소(75%)가 신마산, 4개소(20%)가 원마산에 위치하였다(1개소(5%) 주소불명). 반면, 이들은 원마산의 도로 공사가 완공된 다음 해인 1929년부터 1931년까지 3년간 총 6개소를 설립하였는데, 그중 1개소(16.7%)를 제외한 5개소(83.3%)의 회사가 원마산 일대에 위치하였다. 일본인회사가 원마산의 내부 도로공사 이후, 이 일대에 위치하는 비중이 20%→83.3%로 증가한 것이었다. (김예슬(2019)『일제강점기 마산지역 사업체와 조선인경제인 연구』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부록1 근간)

19) 김예슬(2019), 위의 논문, 부록1 근간

이처럼 일제강점기 조선에는 총 8개소의 매축회사가 존재하였는데, 설립과 유지 주체는 모두 일본인이었다. 이들이 매축공사와 더불어 새롭게 생겨난 땅에 대한 이익을 모두 독점한 것이었다. 매축회사 설립자본금 총액은 4,280,000원(공칭자본금 1,180,000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釜山鎮埋築(株)(3백만원), 작은 규모는 羅老島土地(株)(3만원)였다. 馬山埋築(株)의 설립자본금 규모는 8개소 중 4위였고, 大八社(株), 漁大津土地(株)의 설립 및 공칭자본금과 동일하였다. 설립 시기를 살펴보면, 馬山埋築(株)(1930년 4월)은 大八社(株)(1921년), 釜山鎮埋築(株)(1926년), 釜山築港(合資)(1928년), 統營埋築(株)(1929년), 漁大津土地(株)(1930년)에 이어 여섯 번째로 세워졌다.

馬山埋築(株)이 세워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당시 마산부 당국에서는 “신구마산으로 그 지역이 나누어 잇스며 그 중앙지대는 대부분이 바다로 되어 잇슴으로 이것을 매축하여 신구마산이 합치한 완전한 시구를 구성코자 함이 다년간의 현안이 되어 오든바”²⁰⁾ 공지인 중앙부를 발전시키기 위해 해면 매축을 계획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1929년 6월 14일에 야촌치일랑(野村治一郎), 서본영일(西本榮一), 송원조무(松原早茂) 등은 마산부 壽町(현 수성동), 元町(현 남성동), 慈山(현 자산동) 앞바다 66,252.512坪 매축을 허가받았다.²¹⁾

神戶 실업가 野村治一郎씨 외 오인의 이름으로 免許出願한 中央馬山先地公有水面 매립공사는 이미 허가되어 목하 부산에서 實施 設計 중인바 그 목덕을 말하기 위하여 자본금 오십만원의 중앙마산매축주식회사를 창립할 계획을 한다는데 동 회사는 본월 하순경에 야촌치일랑씨의 마산에 움을 기다려 창립에 착수할 터이라더라.²²⁾

즉, 야촌치일랑(野村治一郎) 외 5인은 中央馬山先地公有水面 매립공사를 허가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30년 4월 6일에 법인회사 馬山埋築(株)을 설립하였다. 회사 설립 목적은 총 다섯 가지로 (1) 마산항 內 공유수면의 매축, (2) 토지의 貸貸借와 함께 매매, (3) 가옥의 건축과 임대차, (4) 항만의 설비, (5) 앞의 네 항목의 부대사업이었다.²³⁾ 이들은 매축사업을 주도할 뿐만이 아니라, 매립공사로 발생한 토지에 대한 임대와 매매까지 독점하고자 한 것이었다.

馬山埋築(株) 설립 주도자들은 본래 자본금 50만원으로 회사를 창립할 계획²⁴⁾이었으나,

20) 「馬山埋築工事 不遠間起工」『每日申報』(1930년 2월 10일); 「四十萬圓으로 馬山中央埋築」『東亞日報』(1931년 8월 27일)

21) 『朝鮮總督府官報-彙報』(제2317호 1934년 9월 28일) 7면

22) 「馬山埋築社準備」『東亞日報』(1929년 7월 15일)

23) 馬山埋築(株)『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31년 판

24) 「馬山埋築社準備」『東亞日報』(1929년 7월 15일)

실제로는 계획보다 1/5에 해당하는 10만원(불입금 25,000)으로 세웠다. 본 회사의 자본금 변동 상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馬山埋築(株)의 자본금 변동

조사 시기	1931년	1933년	1935년	1937년	1939년	1941
자본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불입금	25,000	25,000	75,000	100,000	100,000	100,000

출전: 馬山埋築(株),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31년·1933년·1935년·1937년·1939년·1941년 판

회사는 1930년 4월에 설립되었을 때부터 존립기간 동안 자본금 총액은 10만원으로 일정하였다. 이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불입금이 설립 시기에 25,000원이었으나, 1935년에는 75,000원으로 50,000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1937년 이후로는 불입금이 총 자본 금액인 10만원을 완벽하게 충족하였다.

한편, 회사 조직을 주도한 인물은 야촌치일랑(野村治一郎), 교토[京都] 실업가 화전중삼(和田重三) 등이었는데, 시기별 중역 변동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馬山埋築(株)의 시기별 중역 명단

조사 시기 직책	1931년	1933년	1935년	1937년	1939년	1941년
사장/대표	野村治一郎	野村治一良	野村治一良	野村治一郎	野村治一良	野村治一良
이사	西本榮一	西本榮一	西本榮一	西本榮一	西本榮一	西本榮一
	松原早藏	松原早藏	松原早藏	松原早藏	野村英二	西本源太郎
	西田木惣市	西田木惣市	西田木惣市	西田木惣市	西田木惣市	西田木惣市
	和田重三	和田重三				
감사	米田豊治	米田豊治	米田豊治	米田豊治	岸本勝雄	岸本勝雄
	吉本永吉	吉本永吉	吉本永吉	吉本永吉	吉本永吉	吉本永吉
	島本宇一郎	島本宇一郎	島本宇一郎	島本宇一郎		
합계	8명	8명	7명	7명	6명	6명

출전: 馬山埋築(株),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31년·1933년·1935년·1937년·1939년·1941년 판

본 회사는 사장 야촌치일랑(野村治一郎)을 중심으로 이사 서본영일(西本榮一), 송원조장(松原早藏), 서전목총시(西田木惣市), 화전중삼(和田重三), 야촌영이(野村英二), 서본원태랑(西本源太郎) 6명, 감사 미전풍치(米田豐治), 길본영길(吉本永吉), 조본우일랑(鳥本宇一郎), 안본승웅(岸本勝雄) 4명으로 총 11명이 거쳤다. 대표직은 1명으로 설립 당시부터 존립 시기까지 야촌치일랑(野村治一郎)이 맡았다. 이사직은 3~4명씩 유지되었는데, 서본영일(西本榮一), 서전목총시(西田木惣市) 두 사람만은 해임, 퇴직 등의 변경 없이 직위가 지속되었다. 감사직은 2~3명씩 유지되었고, 변동 없이 자리를 이어나간 것은 길본영길(吉本永吉)이 유일하였다. 특히, 야촌치일랑, 서본영일, 서전목총시 세 사람은 馬山埋築(株)이 1940년 12월 21일에 주주총회를 거쳐 해산이 결정된 이후 청산인을 맡으면서 회사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하였다.²⁵⁾ 이처럼 馬山埋築(株)은 회사 설립부터 청산될 때까지 일본인만으로 중역이 구성된 일본인독점회사였다.

3. 일본인 중역의 유형

3.1 토착형

馬山埋築(株) 소속 경제인은 총 11명으로 모두 일본인이었다.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馬山埋築(株) 소속 경제인 인적 사항

이름	참여 사업체	주소	경제 규모	기타사항
野村治一郎	朝鮮郵船(株), 馬山埋築(株)	2 (원거리)	전국	
西本榮一	釜山商船組(株), 三忠商店(株), 荻野商店(合資), 晋州運送(株), 三原信商店(合資), 馬山埋築(株), 晋州合同運送(株), 麗港運輸(株), 三陟商船組(株), 釜山工作所(株), 大昭運輸(合資), 釜山船塢給水(株), 釜山臨港鐵道(株)	13 (이동형) 釜山府 本町 1-11番地 → 釜山府 富民町 3-36番地ノ1	전국	福井縣 출신 부산상공회의소 의원 자녀(西本源太郎)

25) 『朝鮮總督府官報-登記』(제4199호 1941년 1월 23일) 6면

松原早藏	馬山埋築(株), 馬山水產(株), 生産金融(株), 馬山海産物 (株), 馬山信託(株)	5	(토착형) 馬山府 元町 151番地	부	長岐縣 출신 馬山浦日本人會長 馬山浦居留民團議員 馬山府協議會員 경상남도지방토지 조사위원회 臨時委 員(1915-1917) 馬山金融組合長 舊馬山金融組合長
西田木惣市	共立社(株), 鎮海灣汽船(株), 馬山無盡(株), 馬山信託(株), 馬山埋築(株), 馬山演藝(株), 釜山無盡(株), 西田火藥銃砲 (株), 西田火藥店(株)	9	(토착형) 馬山府 榮町 3 番地	전국	愛媛縣 출신 西田주조장 운영 마산주조조합장 馬山府會議員 마산방공후원회 회장
米田豊治	馬山埋築(株)	1	-	지구	
吉本永吉	釜山煙草(株), 萩野商店(合 資), 三忠商店(株), 釜山商船 組(株), 馬山埋築(株), 朝鮮 洋紙(株), 朝鮮紙器(合資), 朝 鮮鑛業(株)	8	(이동형) 釜山府 本町 3-33番地	전국	
鳥本宇一郎	馬山埋築(株), 釜山商船組 (株) 마산지점, 元東貿易(株)	3	(토착형)	부	
野村英二	馬山埋築(株)	1	(원거리) 兵庫縣 西宮 市 松原町 37番地	지구	
岸本勝雄	馬山埋築(株)	1	(원거리) 大阪市 豊能 郡 箕面村大字平尾 47 番地	지구	
西本源太郎	釜山商船組(株), 大昭運輸 (合資), 萩野商店(合資), 馬 山埋築(株), 三原商店(株), 馬山港運(株), 釜山船舶給水 (株), 中鮮製紙(株), 釜山府 港運(株), 馬山船舶給水(株), 朝鮮近海運輸(株)	11	(이동형) 釜山府 本町 3-17番地 → 釜山府 富 民町 3-36番地	전국	
和田重三	馬山埋築(株)	1	-	지구	
총 11명: 토착형 3명, 이동형 3명, 원거리형 3명, 관별 불가 2명					

출전: 『朝鮮總督府官報-登記』; 馬山埋築(株) 등,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1년·1929
년·1931년·1933년·1935년·1937년·1939년·1941년 판.; 『한국근현대인물자료』; 「釜山日報」·「每日申報」.

이들이 馬山埋築(株)을 비롯하여 관여한 회사 수는 총 34개소(중복제외)였다. 이들 중 서본

영일(西本榮一)이 회사 13개소에서 중역을 담당한 것이 가장 많은 사업체에 참여한 것이었고, 미전풍치(米田豐治), 야촌영이(野村英二), 안본승웅(岸本勝雄), 화전중삼(和田重三) 네 사람이 오직 馬山埋築(株)에서만 직책을 맡았다. 또한, 본 회사 소속 경제인을 경제 규모²⁶⁾로 구분해 보면 전국단위 5명, 도단위 0명, 부단위 2명, 지구단위 4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전국단위 경제 규모를 지닌 경제인 중 마산 정착민이 1명, 외부 유입자가 4명인 것으로 보아, 전국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경제인들이 가세하여 해당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회사의 경제인들은 근거지에 따라 마산에 정착한 ‘토착형’과 외래유입형인 ‘이동형’과 ‘원거리형’으로 나뉜다. 본 절에서는 먼저 토착형 경제인 송원조장(松原早藏), 서전목총시(西田木惣市), 조본우일랑(鳥本宇一郎)을 살펴보고자 한다. 송원조장(松原早藏)은 長岐縣 下縣郡 출신으로 1890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부산에 거주하였다. 그는 1899년에 마산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다음 해인 1900년에 馬山日本人會의 회장, 1906년에는 商業會議所 부회장을 맡았다. 나아가 송원조장(松原早藏)은 1926년, 1929년에 馬山府協議會員으로 당선되면서 행정방면에서도 활동하였다.²⁷⁾ 그가 회사 참여를 시작한 것은 1926년 5월 17일에 馬山汽船(株)(마산부 元町) 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였다.²⁸⁾ 1930년대에는 馬山信託(株)(마산부 元町)의 대표, 馬山埋築(株)(마산부 元町)과 馬山水產(株)(마산부 濱町)의 이사를 각각 맡았다.²⁹⁾ 이렇듯 송원조장(松原早藏)은 마산으로 정착한 이후 경제 및 행정 활동을 점차 쌓아나간 ‘토착형’ 경제인이었다.

송원조장(松原早藏)은 1940년대에 生産金融(株)(마산부 俵町)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참여한 5개소 회사 중 生産金融(株)만이 조선인회사였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회사였다.³⁰⁾ 또한, 그는 원마산 일대인 元町, 俵町 신마산 일대인 濱町에 위치한 회사에서 직책을 담당함으로써

26) 이들의 경제규모를 지구단위, 부단위, 도단위, 전국단위 4단계로 나누어서 설정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경제인	신마산 일대(거류지)에 위치한 사업체(회사, 공장, 개인사업체)에서만 종사한 경제인이다.
부단위경제인	신마산 일대(거류지)와 마산포 일대(원마산)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종사한 경제인이다.
도단위경제인	마산을 비롯하여 창원, 함안, 김해, 통영 등 경상도 내에 위치한 여러 군까지 경제활동을 확장한 경제인이다.
전국단위경제인	2개 이상의 도에 참여한 경제인이다.

27) 마산으로 이전할 당시부터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근현대인물자료(松原早藏)(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m_215_12260).

28) 『朝鮮總督府官報-登記』(제4159호 1926년 7월 1일) 14면

29) 馬山水產(株) 등『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31년 판

30) 『朝鮮總督府官報-登記』(제5095호 1944년 1월 31일) 22-24면

마산부 전체에서 활동한 부단위경제인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서전목총시(西田木惣市)는 愛媛縣 西宇和郡 伊方村 출신으로 1906년 11월에 조선으로 건너와 마산에 정착하였다. 그는 정미업과 주조업 및 농업경영을 중점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는데, 처음으로 참여한 회사도 토지 취득이나 농업경영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共立社(株)였다.³¹⁾ 이후, 그는 1920년대에 鎭海灣汽船(株)(마산부)의 이사, 1930년대에 馬山埋築(株)(마산부)의 이사, 馬山信託(株)(마산부), 馬山無盡(株)(마산부), 馬山演藝(株)(마산부), 釜山無盡(株)(부산부)의 감사, 西田火藥店(株)(마산부)와 西田火藥銃砲(株)(대구부)의 대표를 각각 맡았다.³²⁾ 이처럼 서전목총시(西田木惣市)는 마산으로 정착하고 나서, 개인·공동사업체 경영에 참여한 ‘토착형’ 경제인이었다.

한편, 서전목총시(西田木惣市)는 금융업, 매축업, 예기권번, 상업 등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참여하였다. 게다가 마산부에 근거지를 두고 부산부, 대구부 등 대도시 중심으로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2개의 道 이상에 위치한 회사에서 직책을 맡은 전국단위경제인이었다.

조본우일랑(鳥本宇一郎)이 처음 참여한 회사는 釜山商船組(株) 마산지점(마산부 本町)으로 직책은 마산지점장이었다.³³⁾ 이후 元東貿易(株)(마산부 元町) 대주주, 馬山埋築(株)(마산부 元町) 감사로 취임하였다.³⁴⁾ 그의 거주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마산에 위치한 회사에서만 직책을 맡았고, 특히 마산지점장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내에 거취를 둔 ‘토착형’ 경제인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조본우일랑(鳥本宇一郎)이 馬山埋築(株)의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釜山商船組(株)가 연결고리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釜山商船組(株) 중역 西本榮一, 吉本永吉 등이 馬山埋築(株)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⁵⁾ 아울러 그가 직책을 맡은 3개소의 회사가 원마산 일대인 元町과 신마산 일대인 本町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마산부 전체에서 활동한 부단위경제인에 해당한다.

이 외에 회사 중역으로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화전중삼(和田重三), 미전풍치(米田豊治)가 있었다. 먼저 화전중삼(和田重三)은 馬山埋築(株)(元町) 설립 때부터 1933년까지 이사로 활동한 것 외, 다른 회사에서 직책을 맡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³⁶⁾ 따라서 그는 마산부 내에서도

31) 한국근현대인물자료(西田木惣市)(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m_215_00861).; 共立社(株)『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21년 판

32) 馬山埋築(株) 등『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31년·1933년·1935년·1937년·1939년·1941년·1942년 판

33) 釜山商船組(株)『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33년 판

34) 馬山埋築(株) 등『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31년·1935년 판

35) 釜山商船組(株)『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33년 판

36) 馬山埋築(株)『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31년·1933년 판

원마산인 元町에서만 활동한 지구단위경제인이었다. 다음으로 미전풍치(米田豐治)는 馬山埋築(株)(元町) 설립 때부터 1937년까지 감사를 맡았으며, 이후 주주로만 참여하였다.³⁷⁾ 그가 이 외에 참여한 회사는 없다. 따라서 미전풍치(米田豐治)는 화전중삼(和田重三)과 마찬가지로 마산부 중에서도 원마산 일대인 元町에서만 경제활동을 한 지구단위경제인에 해당한다.

요컨대, 馬山埋築(株) 소속 일본인 경제인 중 ‘토착형’은 3명으로, 이들은 1900년 전후로 마산에 정착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역 행정과 경제 방면으로 활동을 축적하였다. 그래서 馬山埋築(株)의 중역이 되기 이전부터 3~4개소의 회사에서 임원을 맡고 있었다.

3.2 외래유입형: 원거리형과 이동형

馬山埋築(株) 중역 중 마산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6명의 경제인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다시 일본본토에 거취를 두고서 조선에 투자하는 ‘원거리형’ 야촌치일랑(野村治一郎), 야촌영이(野村英二), 안본승웅(岸本勝雄)과 부산과 같은 타지역에서 마산으로 진출하는 ‘이동형’ 서본영일(西本榮一), 서본원태랑(西本源太郎), 길본영길(吉本永吉)로 나뉘었다. 먼저 야촌치일랑(野村治一郎)은 馬山埋築(株) 설립 당시 대표이자 대주주였다.³⁸⁾ 그는 “北日本사장 野村治一郎씨는 11월 상순 만주국 및 조선에 약 10일간의 예정으로 출장하기로 內定”³⁹⁾하였다는 것을 통해 마산이 아닌, 일본본토에 거주하는 경제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야촌치일랑(野村治一郎)은 일본에 본거지를 두고 마산으로 진출하여 회사 설립 및 투자를 이끈 ‘원거리형’ 경제인이다. 더불어 그는 경성부에 위치한 朝鮮郵船新(株)에 이사로 참여하였으므로, 경상남도과 경성부에서 경제활동을 한 전국단위경제인에 해당한다.⁴⁰⁾

다음으로 야촌영이(野村英二)의 조선에서 경제활동은 1937년 11월 14일 馬山埋築(株) 이사로 당선 취임 된 것이 유일하다. 그는 兵庫縣 西宮市 松原町 37번지에 본적을 두고 마산에 위치한 회사로 진출했기 때문에 ‘원거리형’ 단독투자경제인으로 볼 수 있다.⁴¹⁾

안본승웅(岸本勝雄)은 1938년 12월 10일에 馬山埋築(株)의 감사로 취임하여,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직책을 유지하였다. 그가 조선에서 참여한 회사는 馬山埋築(株)이 유일하였다. 또한, 안본승웅(岸本勝雄)은 大阪市 豊能郡 箕面村 大字平尾 47번지에 거취하며 마산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원거리형’ 단독투자경제인에 해당한다.⁴²⁾

37) 馬山埋築(株)『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31년·1933년·1935년·1937년·1939년·1941년 판

38) 馬山埋築(株)『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31년 판

39) 「新瀉航路에도 朝郵出資豫定」『每日申報』(1938년 10월 22일)

40) 朝鮮郵船(株)『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21·1929년·1941년 판

41) 『朝鮮總督府官報-登記』(제3306호 1938년 1월 26일) 14-16면, (제4191호 1941년 1월 14일) 5-8면

다음으로 서본영일(西本榮一)은 福井縣 大飯郡 高濱町 출신으로 1891년에 조선으로 건너와서 부산에 자리 잡았다.⁴³⁾ 참여 회사를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1910년대에는 釜山商船組(株)(부산부) 이사, 1920년대는 萩野商店(合資)(부산부) 사원, 晋州運送(株)(진주군) 이사를 맡으며 진주지역까지 경제활동을 넓혔다.⁴⁴⁾ 1930년대에는 原信商店(合資)(부산부), 大昭運輸(合資)(부산부)의 사원, 馬山埋築(株)(마산부), 釜山船塢給水(株)(부산부), 麗港運輸(株)(전라도)의 이사, 三陟商船組(株)(강원도)와 釜山工作所(株)(부산부)의 감사를 맡으면서 인근 마산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강원도까지 경제영역을 넓힐 정도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⁴⁵⁾ 특히, 그는 馬山埋築(株)에 이사로 참여하기 전부터 釜山商船組(株) 마산지점을 살피며 來往하는 모습을 보였다.⁴⁶⁾ 이처럼 서본영일(西本榮一)은 釜山府 本町 1-11번지에 주소지를 두고 馬山埋築(株)에 참여했음으로 외부에서 마산으로 유입된 ‘이동형’ 경제인이었다.

한편, 서본영일(西本榮一)은 1940년 12월 11일에 馬山埋築(株)이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될 때 대표 야촌치일랑(野村治一良)과 함께 청산인을 맡아 마지막까지 참여하였다. 게다가 그는 1940년대에 三原商店(株)(부산부), 釜山臨港鐵道(株)(부산부)의 이사, 釜山港運(株)(부산부)의 대표를 맡았다.⁴⁷⁾ 1920년~1930년대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회사에 참여했던 모습과 달리 경제활동을 부산부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그는 부산을 거점으로 삼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 각 지역에 설립된 회사에서 직책을 맡은 전국단위 경제인이다.

서본원태랑(西本源太郎)은 부산부에 정착하여, 1930년대에 釜山商船組(株)(부산부) 이사와 大昭運輸(合資)(부산부) 사원이 되면서 사업체 참여를 시작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1937년 4월 15일 서본영일(西本榮一)에게 출자액을 양도받아 萩野商店(合資)(부산부) 이사가 되었고, 1939년 11월 25일에는 馬山埋築(株)(마산부)의 새로운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처럼 서본원태랑(西本源太郎)은 서본영일(西本榮一)이 먼저 참여하던 釜山商船組(株), 萩野商店(合資), 馬山埋

42) 『朝鮮總督府官報-登記』(제3605호 1939년 1월 27일) 7-11면, (제4191호 1941년 1월 14일) 5-8면, (제4788호 1943년 1월 20일) 4-6면

43) 한국근현대인물자료(西本榮一)(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m_215_11930)

44) 『朝鮮總督府官報-登記』(제1186호 1916년 7월 17일) 14면, (제2100호 1919년 8월 11일) 20면, (제3017호 1922년 9월 1일) 10면, (제3967호 1925년 11월 9일) 15면; 晋州運送(株)『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27년 판

45) 『朝鮮總督府官報-登記』(제3046호 1937년 3월 13일) 10-15면, (제3047호 1937년 3월 15일) 9-16면, (제3051호 1937년 3월 19일) 10-15면, (제3068호 1937년 4월 9일) 16-18면, (제3377호 1938년 4월 21일) 9-11면, (제3568호 1938년 12월 9일) 6-12면, (제3572호 1938년 12월 14일) 6-12면; 大昭運輸(合資) 등『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33년·1935년·1939년 판

46) 「商船組 西本榮一氏 來馬」『釜山日報』(1934년 1월 14일)

47) 『朝鮮總督府官報-登記』(제4199호 1941년 1월 23일) 5-6면, (제4347호 1941년 7월 21일) 5-6면, (제4837호 1943년 3월 19일) 4면

築(株), 大昭重輸(合資) 등 네 회사에서 직책을 맡았는데, 이것은 그가 서본영일(西本榮一)의 아들로 혈연관계에 기반 된 것이었다.⁴⁸⁾ 또한, 서본원태랑(西本源太郎) 역시 釜山府 本町 3-17번지에 주소를 두고 馬山埋築(株)에 가담했음으로 외부에서 마산으로 유입된 ‘이동형’ 경제인에 해당하였다.

서본원태랑(西本源太郎)은 1940년대에 釜山船舶給水(株)(부산부)와 三原商店(株)(부산부), 馬山船舶給水(株)(마산부), 馬山港運(株)(마산부), 朝鮮近海運輸(株)(경성부)의 감사, 中鮮製紙(株)(대전부)와 釜山府港運(株)(부산부)의 이사 등 7개소의 회사에서 새롭게 직책을 맡으면서, 총 11개의 사업체에 참여하였다.⁴⁹⁾ 특히 그는 1940년 이후 운수업 및 선박관련 회사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일제의 침략전쟁에 따른 군수품 이동을 통해 전시경제특수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서본원태랑(西本源太郎)은 부산부 6개소, 마산부 3개소, 경성부 1개소, 대전부 1개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한 전국단위경제인이었다.

마지막으로 길본영길(吉本永吉)은 부산부에 거주하면서, 1917년 4월 30일 釜山煙草(株)(부산부) 감사에 당선 취임하며 회사 참여를 시작하였다.⁵⁰⁾ 이후, 그는 1920년대에 荻野商店(合資)(부산부)과 三忠商店(株)(부산부), 釜山商船組(株)(부산부)의 이사를 각각 맡으며 부산에 위치한 회사를 중심으로 참여 사업체를 늘려갔다.⁵¹⁾ 길본영길(吉本永吉)이 마산까지 경제영역을 확장한 것은 1930년 4월 6일 馬山埋築(株)(마산부)이 신설될 때 감사를 담당하면서였다. 그가 해당 회사에서 직책을 맡게 된 것은 釜山商船組(株)에서 함께 근무한 이사 서본영일(西本榮一)과 인적네트워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⁵²⁾ 이렇듯 길본영길(吉本永吉)은 釜山府 本町 3-33번지에 주소를 두고 마산으로 유입된 ‘이동형’ 경제인이었다.

한편, 길본영길(吉本永吉)은 1937년 1월 23일 경성부에서 각종 紙類 및 종이 가공품 매매의 목적하에 朝鮮洋紙(株)를 설립하며 대표를 맡았다.⁵³⁾ 부산부에서 마산부 그리고 경성부까지

48) 『朝鮮總督府官報-登記』(제3026호 1937년 2월 18일) 6-8면, (제3060호 1937년 3월 30일) 13-16면, (제3188호 1937년 8월 30일) 7-12면, (제3060호 1937년 3월 30일) 13-16면, (제3188호 1937년 8월 30일) 7-12면, (제3896호 1940년 1월 19일) 8-12면, (제4199호 1941년 1월 23일) 5-6면.; 한국근현대인물자료(西本榮一)(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m_215_11930)

49) 『朝鮮總督府官報-登記』(제3982호 1940년 5월 3일) 5-12면, (제4355호 1941년 7월 7일) 11면, (제4836호 1943년 3월 18일) 8면, (제4915호 1943년 6월 22일) 4-8면, (제4944호 1943년 7월 26일) 6-8면, (제4979호 1943년 9월 4일) 5-8면, (제5020호 1943년 10월 26일) 16면, (제5034호 1943년 11월 12일) 22-24면

50) 『朝鮮總督府官報-登記』(제1434호 1917년 5월 17일) 18-19면

51) 『朝鮮總督府官報-登記』(제2488호 1920년 11월 26일) 13면, (제2576호 1921년 3월 16일) 13면, (제3928호 1925년 9월 18일) 10-11면

52) 馬山埋築(株)『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31년 판

53) 朝鮮洋紙(株)『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37년 판

경제영역을 ‘전국단위’로 확장한 것이었다. 아울러 부산에서도 朝鮮鑛業(株) 대표, 朝鮮紙器(合資) 사원을 맡으며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⁵⁴⁾

요컨대, 馬山埋築(株) 소속 일본인 경제인 중 외부유입형으로 이동형 3명, 원거리형 3명이 있었다. 이것은 본 회사가 마산 정착민과 인근 지역민(특히 부산), 일본본토의 투자자들이 가세하여 회사가 설립·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동형 경제인의 경우 1890년부터 부산에 정착하였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 행정과 경제 방면에서 활동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馬山埋築(株)의 중역이 되기 전부터 부산부에서 4·5개소 이상의 회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원거리형 경제인은 1930년에 일본본토에 근거지를 두면서 투자를 위해 회사 설립에 가담하였고, 한 명을 제외하고는 馬山埋築(株)에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4. 회사의 독점운영과 민족 차별 경제

馬山埋築(株)이 세워진 그해 5월부터 회사 중역들은 매축공사를 착수하고자 하였다.

中央埋築株式會社は 공사는 5월 上旬부터 着手한다는바 최초 수개월 間은 捨石工事라하며 매축면적 6만 수천坪이라는데 其中 도로 설계 2만 坪가량으로서 매축지와 舊馬山 連絡 中央에 12間 도로를 布設하야 竣工되는 때는 상당한 市街가 설치될 듯하며 此 매축은 해안의 護岸工事와 一方은 매축하는 동시에 부근 海底 掘返 등 이상적 항만을 설비할 예정이라는 바 완성기는 2 3월 후이라더라.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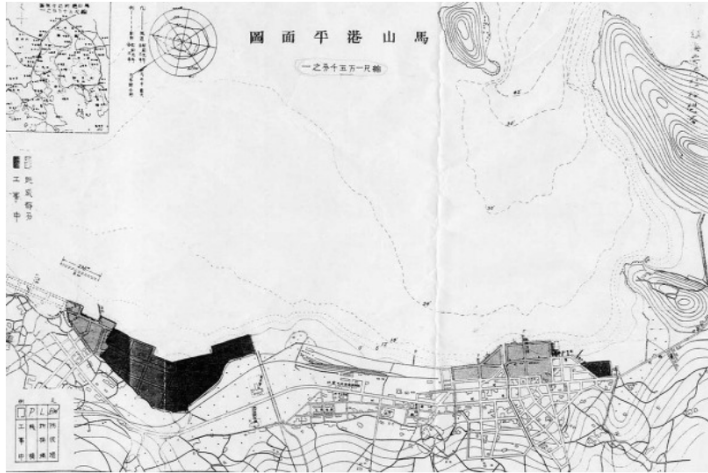
본 회사의 매립계획은 중앙부를 매축하여 시가를 형성하고, 신마산과 구마산(원마산)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6만 평을 매립한 뒤, 그 중 2만 평에는 도로를 놓고자 하였다. 마산지역에는 이전에도 미전팔백삼(米田八百三)이 오동동 해안(1926년~1927년), 목하전평삼랑(目賀田平三郎)이 본정(本町)(1928년) 해안을 각각 매축하여 택지나 공장부지 등을 조성하고자 하였다.⁵⁶⁾ 그런데 기존에 계획되거나 시행된 매축공사의 주체는 개인이었다. 이와 달리 사업체인 馬山埋築(株)을 세워 매축공사를 추진했던 것은 ‘신마산의 월포해수욕장으로부터 구마산의 해안에 이르기까지 연장 팔백메 돌과 현재의 해안으로부터 완성한 후의 매축지

54) 『朝鮮總督府官報·登記』(제3108호 1937년 5월 28일) 7-11면, (제3832호 1939년 10월 27일) 33-36면

55) 「中央馬山 埋築工事 來月上旬着手」『毎日申報』(1930년 4월 29일)

56) 「馬山午東洞 海岸埋築認可」『時代日報』(1926년 7월 3일); 「竣工した馬山の埋築工事, 近く竣工式を舉行」『朝鮮新聞』(1928년 11월 25일)

해면에 이르기까지 삼백오십메 돌이나 되는 큰 공사이라는데 이의 완성에 따라 마산시기는 새로운 면목을 나타내게 될 터이다⁵⁷⁾라는 것처럼 그만큼 큰 공사를 추진해야 했던 영향으로 판단된다. 馬山埋築(株)에서 추진한 매축공사 일대를 표시한 지도이다.



출전: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발췌 허정도와 함께하는 도시이야기 블로그(<http://www.u-story.kr/search/매립설계도>).

<그림1> 馬山埋築(株)의 매축공사 표시 지도

본 회사에서는 1935년에 시가지(검은색으로 표시된 일대)를 조성하며 매립공사를 마무리하였다.⁵⁸⁾ 이 공사를 통해 조성된 토지는 모두 6만6천 평으로 이 가운데 대지가 총 4만8천 평이었고, 도로가 1만 8천 평이었다. 매립되어 새롭게 형성된 이 일대를 풍정(豊町)(현 신포동)이라 하였다.⁵⁹⁾

한편, 馬山埋築(株)의 매립공사가 진척되자 외부의 일본인 경제인들이 매축지 이용권을 확보하고자 마산에 방문하였다.

馬山埋築株式會社 기업의 중앙매축은 日氣溫暖한 관계로 공사는 착착 진척하여 既히 一萬立方坪의 매축에 達하였으므로 금번 小山大阪商船株式會社 부산지점장 및 西本釜山商船組 전무취체역은 29일 열차로 來馬 陣內府尹을 방문하고 該埋立에 대한 장래 시설 시가지 예정 계획 기타 관계사

57) 「四十萬圓으로 馬山中央埋築」『東亞日報』(1931년 8월 27일)

58) 『朝鮮總督府官報』(1935년 3월 1일)

59) 마산시사편찬위원회(1997)『馬山市史』마산시사편찬위원회, p.818

를 打合하고 매립공사의 실태를 踏査한 후 오후 6시부터 陣內부윤, 松原, 西田 諸氏를 望月樓에 招待하여 意見を 交換하였다더라.⁶⁰⁾

이처럼 小山大阪商船(株) 부산지점장, 西本釜山商船組 전무이사 등이 매립공사가 끝난 이후 시가지 및 시설 형성 계획에 관해 합의하기 위하여 마산부윤, 馬山埋築(株) 중역 송원조장(松原早藏), 서전목충시(西田木惣市) 등과 의견을 교환하며 관여하고자 하였다. 즉, 매축공사를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조성된 매축지에 대한 이용권마저 모두 일본인 경제인들이 독점하였다.

일본인들의 독점은 매립공사 추진만이 아니라, 매축지 이용으로도 이어졌다. 새롭게 형성된 풍정(豊町)에 세워진 민족별 회사 실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5> 풍정(豊町)(현 신포동)에 설립된 회사 명단

번호	회사명	설립연도	공정자본금	주소	업종	민족
1	慶南精米2	1940.4	180,000	馬山府 豊町 2丁目 12	工業(정미업)	일
2	馬山精米所5	1941.6	50,000	馬山府 豊町 2丁目 39	工業(정미업)	일
3	丸全醬油2	1942	-	馬山府 豊町	工業(양조업)	일
4	朝鮮丸金醬油2	1942.4	1,000,000	馬山府 豊町 2丁目 100	工業(양조업)	일
5	馬山船舶給水2	1943	30,000	馬山府 豊町 1丁目 48	運輸倉庫業	일
6	馬山港運2	1943	450,000	馬山府 豊町 1丁目 48	運輸倉庫業	일
7	朝鮮竹産工業2	1944	180,000	馬山府 豊町 2丁目 1	工業(원료 및 자재)	일
8	釜山商船組2 馬山支店	1913.5(지)	-	馬山府 本町 1丁目 40 番地 → 豊町 1丁目 48 番地	運輸倉庫業	일
9	朝鮮米穀倉庫2 馬山支店	-	-	馬山府 湊町 1番地 → 豊町 1丁目 42番地	運輸倉庫業	일
합계: 9개소=일본인 회사						

출전: 慶南精米(株) 등,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42년 판.; 『朝鮮總督府官報-登記』, (제 5020호 1943년 10월 26일) 16面, (제4836호 1943년 3월 18일) 8面, (제5128호 1944년 3월 10일) 7面

馬山埋築(株)의 매립공사를 통해 형성된 풍정(豊町)에는 총 9개소의 회사가 위치하였는데, 모두 일본인회사였다. 특히, 마산선 중점(현 삼익아파트 위치)이 1943년에 풍정(豊町)으로 이전됨에 따라, 물품을 생산한 이후 편리하게 운송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1940년부터 해방 전까지 慶南精米(株), 馬山精米所(有限), 丸全醬油(株), 朝鮮丸金醬油

60) 「馬山埋築工事進捗 兩有志招待」『毎日申報』(1932년 2월 6일)

(株), 馬山船舶給水(株) 등 7개소가 신설되고, 釜山商船組(株) 馬山支店, 朝鮮米穀倉庫(株) 馬山支店 등 2개소의 회사가 이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선인회사는 풍정(豐町)에 위치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에 의해 매축권, 매축회사, 매축지 이용 등이 독점되면서, 결국 민족적 차별 경제로 이어진 것이었다.

5. 결론

이상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산항이 1899년 5월 1일에 개항되자, 일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주 정착하였다. 개항 당시 103명에 불과했던 일본인 수는 한일합방 당시인 1910년에는 5,941명에 이를 정도로 약 58배나 증가하였다. 일본인들은 거류지를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거주 및 경제공간을 형성하였고, 1908년에는 본정(本町), 경정(京町), 빈정(濱町) 등 11개의 町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이를 일컬어 스스로 신마산이라 불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마산에 형성한 회사는 총 103개소로 조선인들에 비해 48개소나 많았다.

마산부 당국에서는 원마산과 신마산 공지인 중앙부 앞바다를 매립하여 신구마산 연결을 도모하는 계획을 세웠다. 해당 계획에 맞추어 매립 허가권을 획득한 야촌치일랑(野村治一郎), 서본영일(西本榮一), 송원조장(松原早茂) 등은 1930년 4월 6일에 법인회사인 馬山埋築(株)을 발족하였다. 개인에 의해서 매축사업이 진행되어 오던 마산에서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한 첫 사례였다. 그만큼 중앙부 매축이 기존과 달리 큰 규모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馬山埋築(株)의 중역은 모두 일본인으로 총 11명이 역임하였다.

주소지에 따라 경제인들을 유형화하면 ‘토착형’, ‘이동형’, ‘원거리형’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토착형의 경우 송원조장(松原早藏), 서전목총시(西田木惣市), 조본우일랑(鳥本宇一郎) 3명으로 이들은 1900년에 이미 마산에 정착하여 직책을 맡으며, 馬山水產(株), 鎮海灣汽船(株), 馬山無盡(株), 馬山信託(株) 등 다수의 회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동형 경우 서본영일(西本榮一), 길본영길(吉本永吉), 서본원태랑(西本源太郎) 3명으로 모두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토착형과 마찬가지로 1890년에 정착하여 부산에 설립된 釜山商船組(株), 大昭運輸(合資), 萩野商店(合資) 등의 회사에서 이미 중역을 담당하였다. 이와 달리 원거리형 야촌치일랑(野村治一郎), 야촌영이(野村英二), 안본승웅(岸本勝雄) 3명은 일본본토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회사 설립에 가담하였고, 1930년대에 유입되었다. 이를 통해 馬山埋築(株)은 마산 정착 일본인, 인근 지역 일본인, 일본본토 일본인들에 의해 설립과 유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인

들이 집단적으로 마산지역의 매축사업과 관련 회사를 독점한 것이었다.

馬山埋築(株)의 설립 추진자와 중역들은 전부 일본인 경제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운영과 사업 추진은 물론이고, 새롭게 형성된 매축지 이용에 관해서도 일본인회사 小山大阪商船(株), 西本釜山商船組 등의 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일본인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인들은 매축권 획득, 매축회사 설립, 매축지 사용 등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이다. 馬山埋築(株)의 매립공사 이후 형성된 풍정(豊町)에는 회사 9개소가 위치하였는데, 그 중 조선인회사는 없었다. 7개소가 신설되고, 기존에 설립된 2개소가 이전해 왔으나 전부 일본인회사였다. 즉, 매축권 확보에서부터 매축회사 설립, 매축지 이용 등까지 일본인 경제인만이 소유하면서, 이들이 독점한 경제영역이 존재하였다.

요컨대, 마산지역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거류지에서 비롯된 신마산 일대에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 조선인의 장시까지 끌어오고자 했지만, 조선인들의 저항에 의해 바람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신 이들은 신마산에 상업거리를 조성하고 회사를 세우기 시작하였으며, 마산지역 매축권을 획득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마산에서 유일한 매축회사인 馬山埋築(株)은 오직 일본인 경제인으로만 중역이 구성되었고, 이로 인해 매립공사와 매축지 이용권 등에 대한 이해는 일본인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 마산에는 일본인 경제인들끼리 독차지한 경제영역이 존재하였고, 여기에 조선인들이 배제되면서 결국 ‘민족적 차별 경제’라는 결과를 낳았다.

【참고문헌】

東亞經濟時報社『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1-1942년 판)

『朝鮮總督府官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時代日報』, 『朝鮮新聞』, 『釜山日報』

강용수(1986)「馬山港 貿易의 史的考察」『창원대학논문집』(8), 창원대학교

김명수(2006)「일제하 일본인의 기업 경영」『역사문제연구』(16), 역사문제연구소

김봉렬(2003)「마산 三鎭義舉의 3·1 운동사적 고찰」『경남지역문제연구원 연구총서』(8),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김인호(2018)「일제강점기 평택 지역의 조선인 경제인 실태」『지역과 역사』(42), 부경역사연구소

김예슬(2019)『일제강점기 마산지역 사업체와 조선인경제인 연구』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윤상(2004)「개항 전후 마산지역의 경제적 변화」『역사문화학회』『역사문화학회』

마산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1999)『馬山開港百年史』마산시

허정도(2005)『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신서원

岡庸一(1914)『馬山案内』마산상업회의소

高須瑪公·長田純(1929)『馬山現勢錄』마산현세록간행부

松岡美吉(1941)『躍進馬山の全貌』마산명승고적보존회

諏方史郎(1926)『馬山港誌』조선사담회

平井斌夫(1911)『馬山と鎮海灣』濱田新聞店

논문투고일 : 2019년 12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0년 02월 03일

2차 수정일 : 2020년 0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2월 17일

〈要旨〉

일제강점기 馬山埋築株式會社 운영과 일본인 경제인

김예슬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마산에 설립된 馬山埋築(株)을 대상으로 매축사업 추진, 회사 설립과정, 중역 구성 및 유형 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것을 통해 일본인만의 독점적인 경제영역의 존재, 나아가 지역사회에의 이해를 독차지하는 모습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1) 1899년 5월 마산항 개항 이후 일본인들은 거류지 일대를 ‘신마산’이라 부르며, 이 일대에 회사를 비롯한 사업체 설립을 시작하며 경제공간을 형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마산부 당국에서 계획한 중앙부 앞바다 매립공사권은 野村治一郎, 西本榮一, 松原早茂 등 일본인들이 확보하였다. 이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30년 4월 馬山埋築(株)을 세웠는데, 이 회사의 중역을 거친 경제인은 총 11명으로 모두 일본인이었다. 일본인들이 매축권 획득에서부터 회사설립까지 모두 독점한 것이었다.

(3) 馬山埋築(株)의 중역 구성을 살펴보면, 마산에 정착한 일본인, 인근 지역에서 유입된 일본인, 일본본토에서 진출한 일본인들에 의해 설립·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회사의 설립 추진자와 중역들은 전부 일본인으로 구성되었고, 그러다 보니 회사 운영과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공사 이후 새롭게 발생한 매축지에 대한 이용마저도 모두 일본인 경제인들이 독차지하였다.

요컨대, 마산지역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신마산을 중심으로 상권을 재편하기 위해 조선인들의 장시까지 끌어오고자 했지만, 조선인들의 저항으로 바람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신 이들은 신마산에 상가를 조성하고 회사를 세우기 시작하였으며, 마산의 매축권을 획득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마산에서 유일한 매축회사인 馬山埋築(株)의 중역은 일본인 경제인만으로 구성되었고, 이로 인해 매축공사뿐만 아니라 매축지 이용에 대한 것마저 일본인에 의해 독점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마산에는 일본인 경제인들끼리 독차지한 경제영역이 존재하였고, 여기에 조선인들이 배제되면서 결국 ‘민족적 차별 경제’라는 결과를 낳았다.

Operation of Japanese colonial rule Masanreclamationstock Co., Ltd. and Japanese businessmen

Kim, Ye-Seu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establishment of stock raising project, the company establishment process, and the composition and type of executives in Masanreclamationstock Co., Ltd. established in Masa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rough this, I wanted to reveal the existence of the exclusive economic realm of Japanese people, and further, the understanding of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is study (1), after opening of the Masan Port in May 1899, Japanese people called the area of residence “Shinmasan” and confirmed that they formed an economic space by starting establishment of businesses including companies.

(2) The Japanese had secured the right to reclaim the central offshore project planned by the Masan Ministry. They set up the company in April 1930 to drive business.

(3) It was found that the company was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Japanese settlers in Masan, Japanese immigrants from neighboring areas, and Japanese who entered Japan.

(4) The executives of the company were all Japanese, who owned the newly sold land after construction, as well as the company's operations.

In short, the Japanese who settled in the Masan area tried to bring the Koreans to Jiangxi to reorganize their business centers around Shinmasan(新馬山), but could not achieve the wind by the resistance of the Koreans. Instead, they began to build a shopping mall and set up a company in Shinmasan, and acquired the rights to sell the Masan region, thereby monopolizing the profits generated from it. At the time, Masan-san's executive director, Masan, was the only Japanese aquatic company, which consisted of Japanese businessmen, who were monopolized by the Japanese not only for the construction but also for the use of the land. Therefore,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asan had a monopolized economic zone among Japanese economists, which excluded Koreans, which eventually resulted in a “national discriminatory economy”.